

안데스 텍스트의 탈식민적 독해를 위하여*

우석균**

단독/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Woo, Suk-Kyun (2016), "For the Decolonial Reading of the Colonial Andean Texts"

ABSTRACT

This article has two objectives: firstly, to contribute to a decolonial reading of the Andean colonial texts such as Inca Garcilaso de la Vega's *Royal Commentaries of the Incas* (first part in 1609 and second part 1617) and Felipe Guaman Poma de Ayala's *The First New Chronicle and Good Government* (1615/1616); secondly, to reveal the Korean's prejudices over the Andes and its inhabitants. In the Andean colonial texts, there are many passages that apparently seen as an absurdity or a falsification of history. However, in many cases, these are devices to write back the historiography imposed by the Spanish. Therefore, the great merit of Felipe Guaman Poma de Ayala and Inca Garcilaso de la Vega was the war history against colonial discourses.

Key Words: Andean colonial texts, Inca Garcilaso de la Vega, Felipe Guaman Poma de Ayala, decolonial reading, war history

서론

한국에서 안데스 선주민이나 탈식민주의(decolonialism) 혹은 이 양자를 결합시킨 연구는 몰이해의 장벽에 부딪히곤 한다. 라틴아메리카 연구 자체가 한국 학계에서 변방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장에서조차 푸대접을 받기 일쑤다. 가령,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안데스 선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페루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굳이 필요하냐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식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하여 탈식민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2-B00015).

** Suk-Kyun Woo is HK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wsk65@snu.ac.kr).

주의 연구를 식민지시대 연구로 오인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왜 과거 연구에만 매몰되어 있느냐고 힐난하기도 한다. 역사학자가 들으면 기가 찰 수준의 질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이다.

사실 너무 극단적인 문제 제기이고 힐난이라 당사자 개인의 무지나 몰이해로 치부하면 그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는 확신하게 되었다. 안데스 선주민 연구나 탈식민주의 연구를 대하는 우리 한국인의 인식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극단적인 견해에 치우친 이들과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 체계가 어떻게 그러한 편견들로 귀결되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필자의 연구 관심사에 대한 반론이 보통 단편적인 견해 표출 수준의 것이지 학문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개진된 적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인식의 문제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너무나 친숙한 인식 체계이자 편견이기 때문이다. 가령, 필자가 요즘 잉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할 때와 안데스 선주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할 때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잉카 연구를 한다고 할 때는 한국에서도 누군가는 연구해야 할 분야라는 반응이 많지만, 안데스 선주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 ‘현안’들도 많은데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응이 많다. 그리고 이 사뭇 다른 반응이야말로 세실리아 멘데스가 말하는 “잉카인 sí, 선주민 no”(Incas sí, indios no)라는 공식(Méndez 1996) 아닌 공식과 너무 흡사하다. 독립 후 스페인과 차별화된 국가 정체성 정립을 필요로 하면서도 선주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마음은 전혀 없었던 페루 크리요들의 태도를 이렇게 규정한 것인데, 필자에게는 우리나라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의 태도가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안데스 선주민에 대한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속물이라는 비판은 받기 싫으니가 잉카 문명에 대한 ‘열린’ 자세로 교양인 놀이 혹은 문화인 놀이를 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필자 자신도 처음 안데스 연구를 시작해서 탈식민주의로 지평을 확대할 때까지 끊임없이 의구심에 사로잡힌 전력이 있다.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필자도 그럴진대, 다른 연구자들에게, 나아가 라틴아메리카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편견 없는 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필자가 초기에 안데스 연구를 수행하면서 품게 된 의구심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필자의 초기 의구심이 한국인이든 아니든, 혹은 안데스 연구자이든 아니든 간에 외부에서 안데스를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전형적인 편견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필자가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 연구에 착수했을 때의 의문점을, 그 다음 장에서는 식민지시대 안데스 텍스트들 중에서 소위 정전의 대접을 받는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의 『잉카 왕실사』와 펠리페 와만 포마 데 아얄라의 『최초의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 연구 과정에서 느낀 의구심들을 정리할 것이다. 학술논문이 아닌 신변잡지로 보일 이야기들이 다소 섞여 있지만 양해를 구한다. 여러 가지 쟁점의 부각에 더 효과적이리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 두 장에서는 식민지시대 안데스 텍스트의 탈식민적 독해 지평을 본격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각각 탈식민적 상상의 지리, 그리고 교섭하는 주체와 역사전쟁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잉카 가르실라소와 와만 포마의 텍스트에서 황당무계하거나 정신적 식민화로 보이는 서술들이 사실은 스페인인들의 정복 서사나 식민주의 담론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와 민족적 작가

2010년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타전되었을 때 필자는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가 몇 군데서 자문과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기본 정보 제공 요청에만 응하고, 바르가스 요사에 대한 예찬을 요하는 것들은 거절하였다. 그리고 같이 있던 이들에게 페루 유학 시절 미래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버리는 비주류 근성을 발휘했노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전적으로 우스갯소리는 아니었다. 석사 과정을 페루에서 하기로 결정하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나라라는 점 때문이었고, 유학 초기에도 석사 논문은 바르가스 요사 연구로 쓰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작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의 대표작 『깊은 강들』 (*Los ríos profundos*, 1958)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결정은 한편으로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을 읽을수록 ‘이건 페루 현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막연한 느낌이 그런 결정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히 즉흥적인 결정도 아니었다. 이미 페루 최고의 작가라는 평을 받던

‘매력적’인 소설가 바르가스 요사를 버리는 결정을 그리 쉽게 할 수는 없었다. 고민의 기저에는 위대한 작가라 해서 페루를 대표하는 작가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르케다스의 『깊은 강들』을 택하게 되었다. 아르케다스가 선주민주의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신(新) 선주민주의(neoindigenismo) 문학의 대표적 작가이고, 바르가스 요사의 국제적 성공이 있기 전에는 페루의 국민작가였고, 『깊은 강들』은 그의 대표작이었기 때문이었다.

지식도 일천하고, 따라서 페루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 틀을 갖추고 있었을 리 만무한 시절이니 왜 ‘이건 페루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스스로에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몇 가지 계기로 그 결정이 옳았다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 과정이 뒤따랐다. 하나는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의 『일곱 편의 페루 현실 해석 소고』(1928)의 제2장 「선주민 문제」(“El problema del indio”)의 주장에 공감하게 된 일이었다. 선주민 문제의 해결 없이 페루의 미래는 없다는 요지의 소고였다(Mariátegui 2007, 26-38). 필자의 유학 시절이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의 극단적인 폭력 노선과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실정이 겹쳐 페루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던 시절이라 선주민 문제가 더 심각해진 탓도 컸지만, 당시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던 선주민들이 정복 이래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갈리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수의 선주민이 존재하는 한 페루가 근대 국민국가로서 정상 궤도에 오를 가능성은 없어보였다. 또 한 가지는 정치인으로서의 바르가스 요사의 행보였다. 대선을 앞둔 바르가스 요사는 페루 발전의 유일한 길은 서구 모델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고 있던 터였다.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처럼 이민자가 절대 다수인 백인 국가의 작가라면 모를까, 선주민과 메스티소가 다수인 나라의 작가로서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했다. 페루 작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제3세계 문학은 불가피하게 민족적 알레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혹은 되어야 한다는(Jameson 1986) 인식 수준의 합리화 과정이고 결론이었기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약하기 그지없는 성찰을 통해 엄청난 결정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훗날, 바르가스 요사의 『케케묵은 유토피아: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와 선주민주의 픽션』(1996)을 접했을 때, 필자는 당시의 결정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바르가스 요사는 페루에 소설다운 소설이 존재한 적이 있었냐고 앞 세대 문인들을 가차 없이 비판하는 와중에도 아르케다스만은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책은 선주민주의를 페루의 근대화, 나아가 세계화의 걸림돌로 여기고 그 상징적인 인물로 아르케다스를 꼽고 있다. 그리고 그의 소설을 “아름다운 거짓말”(una hermosa mentira)이었을 뿐이라고 규정하였다 (Vargas Llosa 2004, 84). 미학적 완성도는 높지만 페루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이를테면 바르가스 요사는 페루가 아르케다스가 열망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반대로 페루가 바르가스 요사가 열망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바르가스 요사의 주장은 그저 ‘희생양 찾기’로 비쳐졌다. 페루 역사에서 정치적, 경제적 해계모니를 쥐고 있던 지배계층의 실패 책임을 피지배층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필자에게 바르가스 요사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혼선을 초래한 지식인의 대표적 사례일 뿐이다.

안데스가 워낙 생소한 곳이다 보니 『깊은 강들』을 여러 차례 읽고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결말 부분은 처음부터, 또 오랫동안 납득이 가지 않았다. 콜로노(colono), 즉 대농장에 노예처럼 예속되어 있던 이들의 봉기 일화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 작품 내내 콜로노들은 궁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주인공이자 아르케다스의 자전적 인물인 소년 에르네스토는 콜로노들이 자유인 신분의 선주민들과 달리 지주나 사제의 말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내내 안타까워했다. 즉, 주체성을 가진 개인의 모습, 나아가 사회적 주체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한 것이다. 그러던 콜로노들이 결말 부분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서 아방카이 시로 몰려간다. 그것도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이에 굴하지 않는 결연한 모습을 보인다. 에르네스토는 이 모습을 보고 선주민에 대한, 또 안데스에 대한 낙관적 미래 전망을 획득한다(Arguedas 1983, 196-203). 그런데 필자에게는 콜로노들의 집단행동 이유가 별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역병이 돌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인들이 통행을 차단하자, 신부가 농장으로 오지 못해 종부성사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될까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돌발’ 행동을 한 것이다. 아르케다스는 이 결말에 대해 콜로노들의 행동을 마술적 세계관에 따른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마술적 세계관만으로도 그토록 결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언젠가 깨어 있는 의식을 획득하게 될

날 엄청난 변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한다(VV.AA. 1986, 239).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가톨릭 의례 때문에 봉기를 일으키다니 서구에 대한 안데스 선주민들의 정신적 예속이 너무 심각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들을 식민화된 주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종교 의례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시로 행진하는 ‘막무가내’ 결정을 내리는 콜로노들이 근대의 합리적인 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낙관적 전망을 얻는 에르네스토는 그저 시대착오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닐까?

이러한 일련의 의구심을 지니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당시 아르케다스를 논문 주제로 잡은 이유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아르케다스에게서 ‘민족적 작가’의 전형을 보고 싶다는 기대지평선에서 출발한 논문이었기에 순수하고 원초적이고 직설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갈구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해석 지평에서 보면, 탈식민적 주체(sujeto descolonial)와 탈식민적 텍스트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지평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르케다스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대표 작품에서마저 납득할 만한 탈식민적 주체의 제시에 ‘실패’한 것이 상상력의 빈곤이나 철학의 빈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시대 안데스 텍스트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니고 있던 필자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던 책은 알베르토 플로레스 갈린도의 『잉카 왕을 찾아서: 안데스의 정체성과 유토피아』(1986)였다. 안데스 텍스트의 탈식민적 해석 지평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플로레스 갈린도는 식민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안데스 역사를 유토피아적 열망의 역사로 규정하고, 이를 ‘안데스 유토피아’로 명명했다. 그 열망은 식민질서와 독립 후에도 변치 않은 식민적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으며, 잉카 군주가 메시아로 재림해 기존질서를 뒤엎으리라는 내용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잉카리(‘잉카 왕’이라는 뜻)가 가장 선명한 사례이다. 물론 잉카 군주가 실제로 부활하리라는 ‘미신’ 덕분에 선주민들이 탈식민적 저항의 동력을 얻었다고 플로레스 갈린도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 구심점으로서의

잉카 군주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주목했을 뿐이다. 플로레스 갈린도는 적어도 17세기 초에 발생한 잉카리 신화는 물론, 와만 포마와 잉카 가르실라스 그리고 아르케다스에 이르기까지 안데스 유토피아의 흐름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Flores Galindo 1994; Woo 2011). 채집과 연구에서 아르케다스가 선구적 역할을 한 일련의 잉카리 신화에 담긴 선명한 탈식민적 정신이나 『깊은 강들』의 1장에서 에르네스토가 어느 잉카 군주의 왕궁 담벼락을 어루만지면서 잉카의 돌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대목 등에 대한 플로레스 갈린도의 분석을 접하면서 필자는 비로소 석사논문을 쓰던 시절의 찝찝함을 털어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새로운 인식 지평은 확고하게 유지되지 못했다. 플로레스 갈린도가 열어준 해석 지평을 따라 읽은 잉카 가르실라스의 『잉카 왕실사』와 와만 포마의 『최초의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을 비롯한 식민지시대 안데스 텍스트들이 또다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크게 세 가지 점이 거슬렸다.

첫째, 안데스와 무관한 이야기, 그것도 뜬금없다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령, 잉카 가르실라스의 『잉카 왕실사』 1권 1장에서는 세계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하늘과 땅이 평평한지 둥근지, 모든 지역이 거주 가능한지 아니면 온대 지역만 거주 가능한지, 대척점이 있는지 등을 장황하게 다룬다(Vega 1995, 9-11). 책을 열자마자 마주친 이 대목에서 필자는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에 크게 못마땅했다.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이야 다른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와만 포마의 『최초의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의 도입부 부분은 어이없기까지 했다. 아담과 이브,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등 성서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만 해도 동일한 이유로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다는 대목(Guamán Poma de Ayala 2001, 25[25])과 조우했을 때는 이러한 하찮은 정보까지 제공하는 ‘오지랖’에 아연실색할 정도였다.

둘째, 신빙성 없는 대목이 많아서 이들의 텍스트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기 힘들었다. 특히 역사 서술 부분이 그러했다. 두 작가 모두 안데스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것을 주요 집필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역사를 ‘날조’하는 서술이 너무도 많았다. 잉카 가르실라스는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잉카 군주를 최고의 성군으로 미화한다. 가톨릭 전파에 대해서도 ‘왜곡’을 넘어 ‘날조’ 수준의 황당무계한 서술들이 많다. 잉카 시대에도 십자가가 존재했

고, 군주들이 이를 숭배하지는 않았으나 경의는 표했다고 적고 있다(Vega 1995, 73). 또 미지의 사람들이 나타나 잉카인들의 종교와 제국을 빼앗으리라는 신탁이 정복 전부터 있었다고 서술하기도 한다(Vega 1995, 319-320). 즉, 스페인인들이 잉카를 정복하리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와만 포마 경우는 더 스케일 큰 ‘허풍’을 늘어놓는다. 가령, 인류의 다섯 시대를 논한 장에서 (Guamán Poma de Ayala 2001, 22[22]-32[32]), 아담과 이브의 첫 시대가 지난 뒤 구약의 역사와 안데스의 역사가 사실상 평행하게 전개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두 번째 시대에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가 안데스에 왔으며, 예수가 태어난 무렵에 안데스는 이미 잉카 2대 군주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잉카는 1200년 전후해서 건국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와만 포마는 잉카 시대를 예수 탄생 시점과 맞추기 위해 잉카 군주들이 때로는 수백 살을 산 것처럼 서술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복의 역사에 대해서도 ‘날조’로 일관했다. 와만 포마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는 아타왈파와 왕위계승전쟁을 치른 잉카 군주 와스카르의 2인자(segunda persona)였고, 툼베스 항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스페인 군주의 사신 피사로와 알마그로 등을 평화롭게 맞이하였다 (Guamán Poma de Ayala 2001, 16[16]). 부친의 신분도, 툼베스 항에 파견되었다는 주장도, 피사로 등이 정복자가 아닌 사신 자격으로 왔다는 서술도 모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셋째, 두 사람 다 가톨릭을 척도로 안데스 역사와 사회를 서술하는 점이 거슬렸다. 아르케다스를 처음 접했을 때의 고민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었다. 잉카 가르실라소와 와만 포마 모두 가톨릭이 지배담론이었던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케다스 경우보다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야 할 필요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와만 포마의 경우 『최초의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에서 자신이 국왕과 가톨릭 포교를 위해 30년을 봉사했다는 언급을 되풀이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거슬렸다. 1570년 전후 우상숭배 근절 책무를 띠고 감찰사(visitador)로 활동한 크리스토팔 데 알보르노스(Cristóbal de Albornoz)의 통역을 담당했으며, 초지일관 가톨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였다는 점이 포개져서 더욱 그러했다. 잉카 가르실라소의 경우도 가톨릭 수용론자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선주민이었던 와만 포마와 달리 메스티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전제로 독서에 임했다. 그렇지만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언급들이

크게 못마땅했다. 사실, 잉카 수도 쿠스코를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견준다는 지(Vega 1995, 369),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기독교도가 아니라 무려 30,000위에 이르는 신을 숭상한 이교도였다는 언급처럼(Vega 1995, 29) 잉카 시대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 문명까지 텍스트 서술의 척도가 되고 있는 듯한 상황이 마뜩치 않았다. 요약하자면, 두 사람이 식민체제의 협력자라는 점, 가톨릭은 물론 그리스와 로마까지 서술의 척도로 삼고 있는 점이 필자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포도주에 취한 노아와 탈식민적 상상의 지리

안데스와 무관한 이야기들이 『잉카 왕실사』와 『최초의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필자의 불편함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크게 반성할 대목이다. 부지불식중에 안데스인은 지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지 세계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독서에 임한 셈이니 타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리 없었다. 나아가 무지의 소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불필요해 보이고, 황당무계하게 보이고, 심지어 오지랖으로 보이는 서술들도 사실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

이를 깨닫게 된 데에는 에드워드 W. 사이드의 '상상의 지리' 개념이 유용했다. 그의 대표적 연구서인 『오리엔탈리즘』의 제2장 「상상의 지리와 그 표상: 동양의 동양화」에 이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Said 1996, 91-128). '상상의 지리'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리적 인식이 결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고찰의 산물이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익히 알다시피 사이드는 동양(Orient), 즉 이슬람권에 대한 서양의 특수하다 못해 편견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시각을 비판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사이드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세계를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는 지리관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이러한 지리관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공유되기 힘들다. 잉카인들만 해도 세계가 쿠스코를 중심으로 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리관을 지니고 있었다. 쿠스코가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이고, 그들의 나라를 '네 개의 수유'(suyu), 즉, '네 개의 지역'을 뜻하는 '타완틴수유'(Tawantinsuyu)로 부른 것도 그 때문이다. 서양/동양의

이분법은 오로지 서구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분법이고 그래서 상상의 지리인 것이다. 사이드에 따르면 서구인들의 이러한 상상의 지리는 그리스 시대, 즉 서구 문명의 기원부터 존재했고, 나폴레옹이 1798년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설립한 이집트협회와 연계된 이집트 문명, 예술, 언어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확고한 서구중심주의로 발전했다(Said 1996, 95). 이집트 원정 전의 서구인들의 이슬람권에 대한 지리관이나 역사가관이 자민족 중심주의의 수준이었다면, 원정 후에는 체계적인 서구 우월주의가 정립되었다고 보는 셈이다.

그러나 서구의 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이면서도 확고한 정복과 식민주의의 역사는 이미 아메리카 ‘발견’과 정복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나폴레옹 이전에는 자민족중심주의에서 서구중심주의로의 전이가 없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사이드의 특수한 발화위치, 즉 아랍인으로 겪었던 서구와의 갈등에 입각한 발화위치가 작동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아메리카 정복과 식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실제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훨씬 전에 서구 중심적 상상의 지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를 짐작하게 해주는 사례가 잉카 가르실라소의 다음과 같은 언술이다.

하지만 나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심을 믿고, 세계는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하련다. ‘구세계’니 ‘신세계’니 하지만, ‘신세계’는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세계가 둘이기 때문은 아니다. 세계는 하나인 것이다. 아직도 여러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말 외에는 달리 대꾸할 필요가 없다(Vega 1995, 9).

서양/동양의 이분법을 비판하는 사이드와 유사하게 잉카 가르실라소도 구세계와 신세계의 구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잉카 가르실라소가 이러한 이항 대립이 필연적으로 차별로 귀결된다는 것을 사이드 처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사실 이 차별의 기원은 아메리카 ‘발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메리고 베스푸치와 피에트로 마르티레 단게이라(Pietro Martire d'Anghiera, 1457-1526)의 시각 차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메리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된 이탈리아인 항해사 베스푸치는 몇 차례 아메리카 탐험 뒤에 『새로운 세계』(*Mundus Novus*, 1502 혹은 1503)라는 기록을 남겼다. 마르티레 단게이라라는 이탈리아 태생이지만 1487년부터 스페인에서 활동했고, 1520년 인디아스평의회(Consejo de Indias) 공식 연대기 작가가

되어 『새로운 반구(半球)에 대하여』(*De orbe novo*, 1530)라는 저서를 남겼다. 유사한 제목의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롤레나 아도르노는 베스푸치는 세계 여러 지역이 “각양각색”(variety)이라는 시각으로, 마르티레 단게이라는 세계의 “단일성”(unity)이라는 시각에서 저술 작업을 수행했다고 말한다(Adorno 2011, 15). 이를테면 두 사람이 다양성/단일성의 상반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베스푸치의 다양성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귀결될 시대상황은 아니었다. 아메리카가 콜럼버스가 믿었던 것처럼 아시아가 아니라면, 따라서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미지의 대륙이라면 필연적으로 수반될 질문은 아메리카도 과연 신이 창조한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만일 신이 창조하지 않은 대륙이라면 아메리카는 구세계와 동등한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고, 따라서 아메리카 선주민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아도르노는 마르티레 단게이라는 『새로운 반구에 대하여』가 콜럼버스가 인도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도착한 것이고, 새로운 땅 역시 하느님이 창조한 것이며, 구세계와 새로운 땅 모두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따라서 자연도 하나라고 주장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말한다(Adorno 2011, 15). 세계도 하나, 자연도 하나라는 것은 곧 인간도 하나라는 암시이니 서구인과 선주민의 차별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된다. 잉카 가르실라소가 세계지리를 논한 이유도 이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유럽 이외의 대륙을 폄하하는 서구인의 상상의 지리에 대한 해체나 극복 없이 자신과 같은 메스티소, 즉 비서구인이 차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잉카 가르실라소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구세계와 신세계의 구분은 자의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잉카 가르실라소의 주장을 탈식민적 상상의 지리로 규정할 수 있다.

놀랍게도 외만 포마가 포도주에 취한 노아를 언급한 것도 탈식민적 상상의 지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구세계/신세계의 구분과는 다른 종류의 상상의 지리에 대한 대응이다. 사실 아메리카 ‘발견’ 이전의 중세 유럽인들의 상상의 지리는 확연히 이분법적이지도, 또 서구중심주의적이지도 않았다. T-O지도라고 불리는 다음의 삽화가 중세 유럽의 상상의 지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7세기 초 세비아의 대주교 이시도로(Isidoro, 556?-636)의 『어원학』에 처음 실린 이래 중세 때 널리 통용된 이 지도에 따르면, 세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으로 되어있다. 3분법적인 상상의 지리인 셈이다. 또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 대륙을 배치하였다. 기독교의 우위를 인정한 셈이니 서구중심주의에 입각한 지도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 1. 중세의 T-O지도

그렇지만 이 T-O지도에도 훗날의 서구중심주의의 맹아가 담겨있다. 뚜렷한 대륙 간 차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경에 입각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각각 노아의 세 아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굳이 적시해 놓았다는 점이 그렇다. 주지하다시피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함에 대해서는 아버지 노아에게 불경을 저지른 아들로 서술한다. 포도주에 취해 옷을 벗어버리고 나체로 잠든 아버지 모습을 보고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아는 다른 두 아들에게만 축복을 내리고 함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에 대해 미놀로는 이 성경 일화를 아프리카인에 대한 유럽인의 우월의식의 발로로 간주하고, T-O지도가 이 우월의식을 재생산한 것으로 본다(Mignolo 2010, 66-67).

T-O지도를 통해 표출된 상상의 지리는 아메리카 ‘발견’ 이전의 것이다. 따라서 ‘발견’ 후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지도이자 상상의 지리이다. 또 와만 포마가 이 지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와만 포마가 아프리카인의 조상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았다는 성경의 서술이 아메리카 선주민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다. 와만 포마는 이렇게 적고 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포도를 심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술에 취했다.

그의 아들들은 바벨로니아의 탑을 건설했다. 그 전에는 언어가 동일했으나, 하느님의 명령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 이 시대에 인간은 400년 혹은 300년을 살았다.

하느님이 이 땅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 자손을 퍼뜨리라고 명하셨다. 앞서 언급한 노아의 아들들 중 하나가 하느님을 인디아스에 모셔왔다. 인디인들이 번식했고, 이들은 모두 하느님을 알고 있어서 당신을 강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Guamán Poma de Ayala 2001, 25[25]).

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와만 포마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사실까지만 언급한 뒤 그 뒤의 성경 구절들은 건너뛰고 있다. 즉, 함의 조롱, 세 아들에 대한 노아의 엇갈린 축복과 저주, 함과 아프리카의 관련성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를 격하시키는 상상의 지리가 와만 포마 텍스트에서는 사라진 것이다. 이어지는 서술도 의미심장하다. 하느님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하고, 이에 따라 한 아들이 아메리카에 왔고, 그의 후손인 선주민들이 하느님을 초월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 인류가 모두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있으니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바벨탑 관련 서술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 따르면 바벨탑을 쌓은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아니고, 탑을 높이 쌓아 하느님에 도전하는 불경을 저지른 죄로 인간의 언어가 달라진다. 그런데 와만 포마는 굳이 노아의 아들들을 바벨탑을 쌓은 이들로 날조하고, 그것이 신에게 불경으로 여겨졌다는 이야기도, 인간의 언어가 달라진 것이 하느님의 단죄 때문이라는 서술도 생략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메리카 선주민의 언어가 유럽 언어와 다른 것이 아메리카 선주민이 하느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고, 노아의 아들 중 죄 지은 아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차이가 차별을 만들 소지를 봉쇄하고자 한 것이다. 와만 포마의 탈식민적 상상의 지리가 단순히 지리적 차이를 넘어 더 본질적인 문제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섭하는 주체와 역사전쟁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의구심 중에서 뒤의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한다. 먼저, 기독교 외에 그리스로마 문명도 척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필자의 불만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공연한 문제 제기에 불과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유럽 문명이 기독교와 그리스로마 문명의 두 축에 입각해 있고, 스페인도 유럽 문명권에 속하는 이상 양자를 분리해서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식민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그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색하는 잉카 가르실라소와 와만 포마의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잉카 가르실라소는 메스티소이기 때문에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와만 포마는 선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수용론자가 되었고,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30년 동안은 적극적인 체제 협력자로 식민 지배자들을 도왔다. 카하마르카(Cajamarca)에서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은 1532년이었고, 와만 포마의 『최초의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이 탈고된 시점은 1615년 혹은 1616년이었다. 불과 80여년 만에 안데스 선주민의 정신적 종속이 그토록 심화되었다는 점을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 80여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세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식민질서는 불가역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첫째, 군사 영역에서 정복자들을 축출하기 위한 선주민들의 무장투쟁 동력이 일찌감치 상실되었다. 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위 빌카밤바 왕조의 저항을 들 수 있다. 이 왕조는 스페인인들에 의해 꼭두각시 군주로 옹립되었다가 1536년 도망친 망코 잉카부터 4대에 걸쳐 1572년까지 무장투쟁을 계속했다. 그러나 1536년과 1539년 두 차례의 대규모 봉기에 실패한 후 망코 잉카는 이미 전면적인 전쟁을 획책할 동력을 상실해서, 잉카 고도(古都) 쿠스코에서 멀리 떨어진 빌카밤바를 근거지로 주로 방어를 위한 소규모 국지적 전투만 수행하였다. 심지어 1552년 즉위한 2대 군주 사이라투팍은 스페인인들과 1555년부터 협상을 벌인 끝에 2년 후 빌카밤바에서 나와 쿠스코에 정착했다. 사실상 항복을 택한 셈이다. 물론 곧이어 3대 군주 티투 쿠시 유팡키가 즉위하여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저항을 재개했지만, 그 역시 1565년 협상에 응해 아콤밤바 협정(Capitulación de Acombamba)이라는 일종의 영구평화 협정에 서명했다(Woo 2012, 452-454).

둘째, 제도의 영역에서 식민체제 고착화에 결정적인 단초가 된 제반 조치가 취해졌다. 페루 부왕령 부왕으로 1569년에서 1581년까지 재임한 프란시스코 데 톨레도(Francisco de Toledo)의 역할이 컸다. 특히 세 가지 조치가 두드러진다. 강제이주를 통한 정착촌(reducción) 조성, 선주민 과세 체계 확립, 광산 강제노동 체제 수립이었다(Andrien 1992, 125). 이 모두가 효율적인 수탈을 목적으로 선주민 통제를 강화한 조치들이었다. 또한 톨레도는 1573년에 <법령>(Ordenanzas)을 편찬, 반포하여 식민지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셋째, 담론의 영역에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지배 담론으로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정치론 분야에서는 후안 데 마티엔소가 『페루 통치』(*Gobierno del Perú*, 1567)에서 잉카 군주의 참주정(tiranía)/스페인 군주의 선정이 라는 이분법 하에서 공동의 이익(common good)을 위해 잉카 지배층의 정치적 권위를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역사 분야에서는 페드로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Pedro Sarmiento de Gamboa)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다. 『잉카 역사』(*Historia índica*, 1572)라는 책을 통해 잉카 군주들은 외부에서 침입해 나라를 세우고 확장했으며, 피정복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참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Woo 2014, 147). 마티엔소는 폴로 데 온데가르도(Polo de Ondegardo)와 함께 <법령>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고,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는 톨레도의 영에 따라 『잉카 역사』를 썼다. 지식인들의 담론 구축 작업이 식민체제를 굳건히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기반으로 식민질서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둔 점은 바흐텔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 그는 1560년대 중반 전쟁과 노동 착취와 전염병에 따른 인구 급감, 전통적 생산양식의 해체에 따른 생산력 감소, 지배계층의 붕괴에 따른 사회적 위계질서의 혼란, 우상숭배 근절 등 대대적인 포교 공세가 초래한 전통적 우주관의 혼란 등 심각한 위기들이 안데스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안데스의 1560년대 중반을 정복 이전 구질서의 전반적인 해체 국면으로 평가한다(Wachtel 1976, 135-211).

구질서의 해체는 선주민들의 저항 양상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라 카스트로-클라렌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녀는 정복 후 1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안데스 선주민들의 저항 방식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빌카밤

바 왕조가 주도한 무장투쟁, 와만 포마의 『최초의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 사례 같은 텍스트를 통한 저항, 법적 저항, 타키 옹코이(Taqui Onqoy) 운동 같은 종교적 저항이 그것이다(Castro-Klarén 2011, 101-102).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다. 저항의 중심점이 사라졌다는 징후,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다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사실 카스트로-클라렌의 구분을 보면 지역과 계층의 이해에 따라 저항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초기에 무장투쟁을 주도하다가 이후 협상 노선을 견지하게 된 빌카밤바 왕조의 투쟁은 잉카 최고위층의 선택이었다. 와만 포마의 텍스트를 통한 저항 방식은 이블테면 선주민 지식인의 선택이었다. 비록, 『최초의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에서 자신을 ‘연대기 작가이자 대공’(cronista y príncipe)이라고 줄곧 소개하지만, 자신의 집안이 잉카의 종친 가문이자 핵심 지배층이었다는 주장은 텍스트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날조였을 뿐이다. 법적 저항은 스페인인과 안데스 선주민이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투쟁으로, 식민 체제 속에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지위 개선을 원했던 지방 토호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질병의 춤’이라는 의미의 타키 옹코이 운동은 1564년 전 안데스에 번진 와카(huaca) 숭배 신앙이다. 와카는 마을의 수호신이나 조상신 정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숭배는 잉카 시대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전통 신앙의 복원을 천명한 반가톨릭, 반스페인 운동이었으며, 잉카 시대 이전 질서의 복원에 더 방점을 둔 비잉카 운동이었다(Woo 2012, 455-456). 이 운동의 주역들을 굳이 규정하자면, 식민질서도 전면 부정하고 안데스 구 지배계층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탈식민적 하위주체라고 할 수 있다.

각자도생의 현실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 교섭하는 주체의 탄생이다. 물론 교섭하는 주체는 정복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존재했다. 잉카는 전쟁을 통해서 단시일 내에 급속도로 성장한 국가여서, 피지배 부족들 중에서는 잉카에 마음으로 복속하지 않고 있던 부족들이 많았다. 그래서 스페인인들이 침입했을 때, 반잉카 노선을 취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부족들도 있었고, 비스페인-비잉카 노선을 취해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부족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사태가 종결되고 스페인인들이 철수하기를 기대했기에 이들의 잔류를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식민체제 자체와 교섭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카스트로-클라렌이 언급한 네 가지 저항 방식에서 앞의 세 가지는 정복자

들이 안데스에 정착하리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한 것이었다. 그래서 교섭하는 주체가 문제의 시기에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타키 옹코이 운동을 지지하는 선명한 탈식민적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교섭하는 주체/탈식민적 주체의 이분법적 구분이나, 탈식민적 주체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교섭하는 주체와 탈식민적 주체의 구분 자체가 그리 쉽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교섭하는 주체도 탈식민적 주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식민체제에 의미 있는 도전을 했다.

필자가 보기에, 불가역적인 식민질서 속에서 교섭하는 주체의 길을 택한 외만 포마 혹은 메스티소라는 태생적 운명 때문에 애초부터 스페인인과 선주민 양측을 상대로 교섭하는 주체의 위치에 있었던 잉카 가르실라소가 시도한 가장 중요한 탈식민적 행보는 역사전쟁이었다. 이들은 ‘정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역사로 보았다는 뜻이다.

이들이 취한 가장 일반적인 태도는 정복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그토록 무수히 되풀이되는 가톨릭 관련 서술이 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정복자들의 지배 담론은 일반적으로 복음 전파를 정복의 최대 명분으로 삼았다. 그래서 ‘영혼의 정복’ 작업이 뒤따른 것이다. 그런데 외만 포마는 안데스 선주민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잉카 가르실라소는 스페인 정복 이전에 십자가가 존재했다고 적고 있다. 스페인인들과 무관하게 안데스에 가톨릭이 전파된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페인인들의 정복은 명분 없는 짓이다. 따라서 스페인인들의 식민지배 역시 정당성이 결여된 역사가 된다. 물론 교섭하는 주체의 특성상 식민 질서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서술로 일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외만 포마의 텍스트가 “은폐된 논쟁”(polémica oculta)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규정한다(Adorno 1989, 22).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식민체제의 협력자였다는 사실을 빈번하게 상기시키되, 실제로는 정복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메스티소였던 잉카 가르실라소는 더 교묘한 태도를 취한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주민들의 복권뿐만 아니라 부친 같은 정복자들의 위업을 동시에 기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잉카 군주들을 일종의 문화 영웅으로 격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숭배를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인들의 도래는 불가피했다는 식의 논리를 개발한다. 잉카 군주들을 문화 영웅으로 격상시킨 이유는 로마 황제들처럼 백성을 교화시켜, 장차 가톨릭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종교 체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 즉 가톨릭 수용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잉카 군주들이 십자가를 신성한 장소에 모셔두었다는 서술이나, 11대 군주 와이나 카팍이 태양신보다 더 상급신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는 서술은 가톨릭 수용 예비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였다(Woo 2014, 141-143).

역사전쟁에서 교섭하는 주체들이 주안점을 둔 또 다른 사안은 기독교 보편사,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술된 보편사에 선주민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안데스 선주민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외만 포마의 주장이 이 사안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는 시도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정복 이전에 이미 안데스에 기독교를 포교했다는 주장일 것이다. 이 주장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야기로, 성 도마(Santo Tomás)나 성 바돌로매(San Bartolomé)가 그 주인공으로 지목된다. 가령, 잉카 가르실라소와 외만 포마는 바돌로매를 (Vega 1995, 304; Guamán Poma de Ayala 2001, 94[94]), 또 다른 선주민 연대기 작가로 『고대 페루 왕국 보고서』(*Relación de antigüedades deste Reyno del Piru*, 1613 혹은 1630)를 남긴 후안 데 산타 크루스 파차쿠티 야키 살카마이와(Juan de Santa Cruz Pachacuti Yamqui Salcamayhua)는 도마를 언급한다(Woo 2012, 457). 사실 이 주장의 기원은 스페인인들이었다. 이에 대해 처음 연구한 피에르 뒤비올(Pierre Duviols)의 연구를 인용, 심화시킨 라켈 창-로드리게스에 따르면, 1548년경에 처음 안데스에 유포되었고, 16세기 중반 스페인인들이 남긴 여러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551년 열린 리마 공의회(Concilio Limense)는 공식적으로 이 주장을 배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페드로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 에르난도 데 아벤다노(Hernando de Avendaño), 프란시스코 데 아빌라(Francisco de Ávila) 등은 이 주장을 계속 유포했다.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가 톨레도 부왕 시절의 제도권 역사가이고, 뒤의 두 사람이 우상숭배 척결 책무를 맡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되듯이, 이들의 의도는 불순했다.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도 또다시 혹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진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의도에서 리마 공의회의 공식 입장마저 묵살하고 예수 제자 도래설을 계속 유포한 것이다(Chang-Rodríguez 1987, 560-562). 하지만,

이 설은 메스티소나 선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유익하게 이용될 여지가 있었다. 기독교적 관점의 세계사 서술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예수가 유대인의 신, 즉 지역의 신이 아니라 보편적 신이라는 기독교 교리를 뒷받침하려면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가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의 보편사 서술은 12사도의 포교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안데스에도 12사도 중 한 사람이 포교를 했다는 설은, 선주민들이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제자에 의해 복음 전파의 보편사에 이미 자리매김했다는 증거가 된다.

또 다른 역사전쟁은 ‘정복’이라는 사건을 스페인인들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 안데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잉카 가르실라소는 또다시 이중 전략을 구사한다. 한편으로는 정복자들을 “용기와 군사적 지식을 통해 그 풍요로운 [잉카] 제국을 하느님과 폐하와 자신들을 위해 획득한 영웅적인 스페인인들”(Vega 2009, 23)이라고 말하면서, 정복에서 스페인인들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나 때로는 정복이 외지인들과 상관없이 안데스 역사의 흐름 속에 이미 예정된 일이었던 것처럼 서술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라코차의 환영(*fantasma*) 신화이다. 이 신화에 대한 여러 기록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어느 잉카 왕자에게 위라코차를 자처하는 환영이 나타나 외적의 침입을 예고하고, 실제로 창카인의 쿠스코 침략이 발생하고, 군주는 도망치지만 왕자가 중심이 되어 이를 격퇴한 뒤 왕위를 잇는다. 주목할 점은 위라코차의 모습이 훗날의 스페인 정복자를 연상시켰고, 정복 초기에 선주민들이 스페인인과 위라코차를 동일시했고, 그래서 비교적 순수히 스페인인들을 맞아들였다는 주장이다. 신화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크리스토팔 카스트로 데 바카(Cristóbal Vaca de Castro) 부왕 시절인 1542년 매듭문자 키푸 기록자(*quipucamayoc*)들의 이야기를 채록한 텍스트가 최초라고도 하고, 1550년 전후 페드로 시에사 데 레온을 위시한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이 처음 기록했다고도 한다(Gose 2008, 55). 잉카 가르실라소는 이 동일시에 대해 때로는 “허망한 믿음”(vana creencia)으로 폄하하기도 한다(Vega 1995, 301). 하지만 대단히 비중 있게 다루는 모순을 보인다. 『잉카 왕실사』 1부 4권의 21장과 22장, 그리고 5권의 21장, 22장, 28장이 환영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기타 여러 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위라코차 환영의 계시를 받고, 창카인과의 전쟁에 승리하여 즉위하여 환영을 본떠 잉카 위라코차라고 불리게 된

8대 군주 때부터 잉카 왕실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미지의 사람들이 나타나 잉카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신탁이 있었다고 서술함으로써(Vega 1995, 319-320), 환영의 출현과 계시를 기정사실화한다.

주지하다시피 멕시코 정복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케찰코아틀을 귀환 신화로, 아스테카의 군주 목테수마가 코르테스에게 테노치티틀란 무혈입성을 허락한 이유로 종종 거론되어 왔다. 토도로프는 이 신화가 정복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목테수마의 케찰코아틀과 코르테스 동일시가 코르테스의 의도적 조작이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보이게 만들려고 코르테스가 선주민들의 신화를 왜곡했다는 것이다(Todorov 1997, 129).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설화 연구자 존 비어호스트의 해석은 다르다. 그에게 이 신화는 정복을 “선주민들의 예언의 영역”에서 다루려 하는 시도이고, 따라서 “서구 역사에서 정복을 삭제”하고 “선주민들에게 주도권을 부여”한 행위이다(Bierhost 2003, 3-4). 위라코차 환영에 대해서도 해석은 엇갈린다. 정복 전에 실제로 존재한 신화라 보기도 하고 정복자들이 날조한 신화라고 보기도 한다(Gose 2008, 48). 한편으론 오히려 선주민들이 정복 후에 날조한 신화로 보기도 한다. 신탁에 따라 별다른 저항 없이 스페인인들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식민체제에서 받을 불이익을 경감시키려고 그랬다는 것이다(Gose 2008, 52).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아마도 각 집단이 위라코차 환영 이야기를 이해관계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적어도 선주민들에게는 비어호스트의 해석처럼 정복을 스페인인들의 역사가 아닌 그들의 예언의 역사의 실현으로 보고 싶어 하는 심리가 분명 존재했던 것 같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원주민 텍스트들이 모두 소위 ‘정복은 없었다(no hubo conquista) 담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티투 쿠시 유팡키는 부왕 망코 잉카가 프란시스코 피사로를 쿠스코로 초빙했다고 구술하였다(Titu Cusi Yupanqui 2006, 20). 외만 포마도 앞서 말한 것처럼 부친이 사신 대 사신 자격으로 스페인 정복자들을 툼베스 향에서 맞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산타 크루스 파차쿠티 역시 자신의 조상들이 자발적으로 스페인 정복자들이 있는 카하마르카로 가서 개종했다고 서술함으로써, 정복이 아니라 평화적 복속이 이루어졌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Chang-Rodríguez 1987, 563).

결론: ‘병어리와 귀머거리의 대화’를 넘어

아스테카 정복 직후 12인의 프란체스코회 수사들이 멕시코에서 포교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시절이 있었다. 예수 제자들의 숭고한 사명감과 위업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프란체스코회에서 일부러 12인을 파견한 것이다. 이들은 타자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었다. 그래서 틀라마티니(tlamatini), 즉 아스테카의 현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엔리케 두셀은 이 대화에서 “인디오는 병어리 같았고, 스페인인들은 귀머거리 같았다”(Dussel 2011, 188-189)라고 평한다.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오직 가톨릭이 정답이고 포교가 지상과제라고 생각한 프란체스코회 수사들에게 틀라마티니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 없으니 스페인인들은 귀머거리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수사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틀라마티니들은 병어리나 마찬가지 신세였다. 승자와 패자 사이에 대등한 대화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안데스 선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도도 귀머거리 수준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더 한심하다. 스페인인들은 승자였기 때문에 천박한 우월감을 지닐 여지라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물론 독립 이후 2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별다른 ‘발전’을 성취하지 못했으면 당사자들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닌지, 정복과 식민지배 탓만 하는 것이 과거지향적인 태도가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만 짚어보아도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니다. 첫째, 해방 이후 70여년 만에 상당한 ‘발전’을 성취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안데스의 ‘낙후’된 현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36년 지배를 당했을 뿐이고 안데스는 무려 300년이나 식민 지배를 겪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36년 지배의 후유증에도 오늘날까지 과거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를 살면서 300년 식민지배의 후유증을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둘째, 안데스는 독립 이후에도 지배자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차이점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단순히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델라 이전의 남아공처럼 인종의 차이가 곧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이를 결정짓는 내부 식민 사회에서 아직도 완전히 탈피했다고 보기 힘들다. 사파티스타들이 “우리는 500년 투쟁의 산물”(Comandancia General del EZLN

1993)이라고 선언한 것도, 볼리비아가 개혁을 하면서 ‘제헌 헌법’이라 칭하고 자국 명칭도 ‘볼리비아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로 선언한 이유도 정복 이래 내부 식민이라는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는 인식 하에서였다. 셋째, 선주민들의 과거지향적 태도가 문제라는 인식도 깊이 성찰해야 할 대상이다. 필자로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타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증거일 뿐이다. 어째서 과거사만 집착해서 현재도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도 열어가지 못하는냐는 비판인데, 우리 사회가 일제 강점기와 그 후유증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회가 아닌가?

도입부 부분을 제외하면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식민지시대 안데스 텍스트의 탈식민적 독해를 돕기 위한 두 가지 시도를 했다. 첫 번째는 황당무계하거나 역사적 낱조로 보이는 대목들이 상당 부분 지배담론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일이었다. 때로는 ‘포도주에 취한 노아’라는 하찮은 대목조차 탈식민적 상상의 지리에 입각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는 식민체제가 일찌감치 불가역적인 된 상황이 불가피하게 교섭하는 주체를 양산했지만, 이 주체가 식민 지배자에게 협조나 구걸로 일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역사전쟁을 시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었다. 이 전쟁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이를테면 사파티스타 봉기나 볼리비아 제헌 헌법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노력의 의미를 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기 바란다. 최근의 국정교과서 문제는 어느 쪽 입장이 옳고 그르기의 문제를 떠나서 역사 서술이라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와만 포마나 잉카 가르실라소가 시도한 역사전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인종과 계급 차별에 입각한 식민체제가 불가역적인 것이 된 상황에서, 즉 선주민과 메스티소가 차별 받게 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야기한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미래는 영원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Adorno, Rolena(1989), *Cronista y príncipe: la obra de don Felipe Guaman Poma de Ayala*, Lim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_____(2011), *Colonial Latin American Literatur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ndrien, Kenneth J.(1992), “Spaniards, Andeans, and the Early Colonial State in Peru,” in Kenneth J. Andrien and Rolena Adorno(eds.), *Transatlantic Encounter: Europeans and Andeans in the 16th Centu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21-148.
- Arguedas, José María(1983), *Los ríos profundos*, in José María Arguedas, *Obras completas*, tomo III, Lima: Editorial Horizonte.
- Bierhorst, John(comp.)(2003), *Cuentos folklóricos latinoamericanos: fábulas de las tradiciones e indígenas*, José Lucas Badué(trans.), New York: Vintage Español.
- Castro-Klarén, Sara(2011), *The Narrow Pass of Our Nerves: Writing Coloniality and Postcolonial Theory*, Madrid: Iberoamericana Vervuert.
- Chang-Rodríguez, Raquel(1987), “Santo Tomás en los Andes,” *Revista Iberoamericana*, Vol. LIII, No. 140, pp. 559-567.
- Comandancia General del EZLN(1993), “Declaración de la Selva Lacandona,” <http://palabra.ezln.org.mx/comunicados/1994/1993.htm>
- Dussel, Enrique(2011), 1492. *El encubrimiento del otro: hacia el origen del “mito de la modernidad”*, Park Byung-Kyu(trans.), Seoul: Greenbee.
- Flores Galindo, Alberto(1994), *Buscando un Inca: identidad y utopía en los Andes*, 4th ed., Lima: Editorial Horizonte.
- Gose, Peter(2008), *Invaders as Ancestors: On the Intercultural Making and Unmaking of Spanish Colonialism in the Andes*, Toronto/Buffalo/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uamán Poma de Ayala, Felipe(2001), *El primer nueva corónica y buen gobierno*, <http://www.kb.dk/permalink/2006/poma/info/es/frontpage.htm>
- Jameson, Fredric(1986),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No. 15, pp. 65-88.
- Mariátegui, José Carlos(2007), *7 ensayos de interpretación de la realidad peruana*, 3rd ed. corregida y aumentada, Caracas: Fundación Biblioteca Ayacucho.
- Méndez, Cecilia(1996), “Incas sí, indios no: Apuntes para el estudio del nacionalismo criollo en el Perú,” <http://cholonautas.edu.pe/modulo/upload/Mendez.pdf>
- Mignolo, Walter D.(2010), *The Idea of Latin America*, Eun-Joong Kim(trans.), Seoul: Greenbee.
- Pachacuti Yamqui Salcamaygua, Juan de Santa Cruz(1995), *Relación de antigüedades de este reino del Perú*, (edición, índice analítico y glosario de Carlos Aranibar), Lim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Said, Edward(1996), *Orientalism*, Hong-Kyu Park(trans.), 10th ed., Seoul: Kyobo

Mungo.

- Titu Cusi Yupanqui(2006), *History of How the Spaniards Arrived in Peru*, Catherine Julien(trans.), Dual Language ed.,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 Todorov, Tzvetan(1997), *La conquista de América: el problema del otro*, Floroa Botton Burlá(trans.), 3rd ed., México, D.F.: Siglo XXI.
- Vargas Llosa, Mario(2004), *La utopía arcaica: José María Arguedas y las ficciones del indigenismo*, 2nd reimpression,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Vega, Inca Garcilaso de la(1995),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 2 tomos, 1st reimpression,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_____(2009), *Historia general del Perú*, Lima: SCG.
- VV.AA.(1986), *Primer encuentro de narradores peruanos*, 2nd ed., Lima: Latinoamericana Editores.
- Wachtel, Nathan(1976), *Los vencidos: los indios del Perú frente a la conquista española*, Antonio Escohotado(trans.), Madrid: Alianza Editorial.
- Woo, Suk-Kyun(2005), “La utopía andina,” *Iberoamérica*, Vol. 7, No. 2, pp. 1-30.
- _____(2011), “Buscando un Inca: identidad y utopía en los Andes de Alberto Flores Galindo,” *TransLatín*, No. 18, pp. 67-78, <http://translatin.snu.ac.kr/translatin/1112/pdf/Trans11121808.pdf>
- _____(2012), “The Colonial Regime and Andean Elite: Diplomatic Game and Anti-Colonial Discourse,” *Estudios Hispánicos*, No. 63, pp. 439-465.
- _____(2014), “Inca Garcilaso, Renaissance and Mestizo Text,” *Revista Iberoamericana*, Vol. 25, No. 1, pp. 127-152.

Article Received: 2016. 09. 12.

Revised: 2016. 11. 09.

Accepted: 2016. 11. 09.